

전일동향

전일대비 6.30원 하락한 1,335.90원에 마감

5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6.30원 하락한 1,335.90원에 마감했다. 이날 환율은 NDF 달러-원 1개월물 하락을 반영해 전 거래일 증가 대비 6.70원 하락한 1,335.50원에 개장했다. 연준 빅컷 기대감 고조에 환율은 하락 출발했다. 장 초반 중국 고시환율 하락에 의한 위안화 강세에 환율은 낙폭을 확대했다. 오후장에서 결제 수요와 커스터디 매수 흐름에 환율은 1,338.10원까지 상승했다. 그러나 역외 매도 물량 출회로 다시 하락하며, 1,335.50원에 증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장중 변동 폭은 6.3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33.62원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335.50	1338.10	1331.80	1335.90	1335.80
	엔화	933.57	937.33	925.46	931.09	-
	유로화	1487.35	1487.96	1475.90	1484.18	-

* 시가/고가/저가/종가 : 달러는 익일 06:00 기준, 엔화 및 유로화는 15:30 기준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-1.91	-6.81	-13.44	-22.82
	결제환율(수입)	-1.35	-5.89	-11.6	-19.39
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
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 확인

금일 전망

달러 약세 지속에...1,330원대 초반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2.40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335.90) 대비 2.00원 하락한 1,331.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 금일 환율은 미 민간고용 부진 여파에 따른 달러 약세에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. ADP 8월 민간 부문 고용이 전월 대비 9.9만 명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(14.4만)를 크게 하회했다. 이에 달러인덱스가 전일 대비 0.23 하락한 101.06을 기록했다. 반면 미 8월 ISM 서비스업 PMI는 51.1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아 침체 우려를 일부 축소했다. 뉴욕증시는 엇갈린 미 경제지표의 영향에 다우지수 -0.54%, 나스닥 -5.05%, S&P +0.25%로 마감했다. 한편 엔화는 일본 임금 상승 호조로 BOJ 추가 인상 기대감 고조에 강세를 보였다. 달러 약세 흐름 유지에 원화 강세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. 글로벌 달러 약세 및 위안화 강세 동조화도 환율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. 다만, 금일 저녁 예정된 미 비농업 고용 지표 발표에 대한 경계 심리 및 수입업체 결제 수요 등은 환율의 하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328.00 ~ 1336.00 원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5899.02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.00원 ↓
	■ 美 다우지수 : 40755.75, -219.22p(-0.54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96.54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10955 억원